

# 유대타동사의 의미용법과 분포상황에 관한 고찰\*

-사전 분석을 통해서-

최 병 규\*\*

(e-mail: bgchoi56@hanmail.net)

---

## 목 차

---

|  |                 |
|--|-----------------|
| I 들어가기                                   | IV 양용동사의 의미와 용법 |
| II 유대타동사의 의미와 용법                         | V 마무리           |
| III 언어론의 관점에서 본 유대타동사<br>의 의미 분류 및 분포 상황 | 참고문헌<br>요지      |

---

## I 들어가기

현대일본어사전의 동사어구에 관한 설명에는 반드시 자동사-타동사의 구별이 명기되어 있고 그 밑에 활용의 종류가 적혀 있으나, 이 자타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전에 따라서는 곳곳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일본어 문법에 있어서 자타의 인정은 하위분류의 개념이지만 확고한 판단 기준이 없고 의외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자타의 판별은 형태적인 자타 대응, 동사와 「を格」 명사와의 의미관계, 그리고 직접 수동의 성립 여부를 근거로 이루어지나, 이 자동사-타동사의 관계는 양자가 대립하는 것(유대타동사)<sup>1)</sup>, 대립하는 타동사가 없고 자동사뿐인 것, 반대로 대립하는 자동사가 없고 타동사뿐인 것,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가

---

\* 이 연구는 201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일본어과 교수/ 일본어문법

1) 有対他動詞란 早津(「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 1989)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본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같은 것(자타동형)등 4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자타동사의 연구는 須賀一好(1986)과 早津恵美子(1989)에 의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早津의 有対他動詞-無対他動詞의 용어규정 및 의미 분석은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타동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동사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を格」명사와의 결합여부에 보다 판단의 중점을 두는 연어론(連語論)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방대한 양의 전체 타동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타동사의 의미적인 특징과 분포상황을 다른 의미 그룹과의 대비 속에서도 설명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각각의 의미그룹을 자동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유대타동사의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유대타동사는 동사전체의 비율로 보면 25퍼센트 정도로 적지만, 어휘적인 면에서는 의미적인 유사성이 있고, 문법적인 면에서는 같은 어간에 대한 접미어의 변화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는 같은 명사를 자동사의 경우는 주체로, 타동사의 경우는 객체에 위치시킬 수가 있다.

(예1) 花が 飛ぶ ↔ 花を 飛ばす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양쪽의 성질을 가진 유대타동사 이외에, 어휘적인 대립뿐인 것, 형태상의 대립뿐인 것 등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립관계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 범위도 기존의 연구에서 빠진 동사들 뿐 만 아니라 같은 형태로 자동사나 타동사 양쪽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자타동형동사(양용동사)들도 분석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것은 양용동사도 자-타동사의 대립이 존재하는 유대타동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는 三省堂 『新明解国語辞典(第4版1989年 발행)』에서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복합동사나 한어동사는 분석 상의 이유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유대타동사의 의미와 용법

일본어의 자동사-타동사 분류는 현재의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동사의 유사

성이나 문 속의 역할 등을 고려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종래의 문법서의 설명을 예를 들어 보면,<sup>2)</sup>

自動詞            ↔            他動詞  
 {學問が 進む。(マ行 5 段)    ↔    學問を 進める。(マ行下一段) }  
 {名が 残る。(ラ行 5 段)        ↔    名を 残す。        (サ行 5 段) }  
 右の「進む」と「進める」、「残る」と「残す」とは、語の中心をなす部分に共通するところがあるが、しかし、活用が違う。活用の違うのに従って、その意味も違ってくる。一方はその動作や作用をそれ自身だけの働きとして表わし、一方は他に対する働きかけとして表わしている。前者を自動詞、後者を他動詞という。

「進むと進める」「残ると残す」와 같이 가장 전형적인 대립관계인 동사의 경우 자동사 타동사의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밖에도 복잡한 자타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둘이 같은 명사인 경우를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 서로 다른 경우를 「전형적인 대립이 없는 것」으로 나누기로 하고 동사의 의미나 결합되는 명사의 성격에 따른 차이점에도 주목하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 1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

이것은 자타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위치가 주체나 객체나에 따라서 구별함으로써 동사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문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자타동사가 어휘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될 뿐 결합하는 명사가 다른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를 보면, 구체명사, 추상명사, 현상명사 등 다양하므로 동사의 의미적인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나누기로 한다.

본래 동사에는 하나의 동사에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것부터 다수의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수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파생적인 의미로 변하여 특정 단어하고만 결합하게 되며 결국 주체나 객체에 오는 단어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동사 본래의 의미와 연관이 있으므로 (1)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것> (2) <파생적인 의미를 가진 것> (3) <양쪽 의미를 다 가진 것>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 (1)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것>

2) 岩淵悦太郎 関根俊雄 山崎久之共著, 『新版口語の文法』, 秀英出版, 1970, 28쪽.

(예2) 手紙が 残る ↔ 手紙を 残す

(예3) 花が 育つ ↔ 花を 育てる

(예4) 氷が 溶ける ↔ 氷を 溶かす

(예5) 車が 止まる ↔ 車を 止める

(예6) 着物が 汚れる ↔ 着物を 汚す

コップが 割れる ↔ コップを 割る

髭(ひげ)가 生える ↔ 髭을 生やす

子供が 甘える ↔ 子供を 甘やかす

お湯が 沸く ↔ お湯を 沸かす

顔が 映る ↔ 顔を 映す

위와 같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결합하는 명사는 추상명사나 현상명사보다도 구체 명사가 많은 것 같다. 주체(대부분 사람)이 객체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 타동사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면, 그 동작을 행한 결과가 자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용례(6)을 보면, 「着物が汚れる」는 「着物を汚す」결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顔を映す」함으로서 그 결과로서 「顔が映る」하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7) ねじが 緩む ↔ ねじを 緩める

窓が 壊れる ↔ 窓を 壊す

「ねじが緩む」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ねじを緩める」해야 하며, 「窓が壊れる」되기 위해서는 「窓を壊す」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고에서는 <가역성(可逆性)>이라고 부르기로 하며, 따라서 가역성이 성립하는 것을 유대 타동사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 특징은 전형적인 대립 중 특히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 뚜렷하게 나타난다.<sup>3)</sup>

## (2) <파생적인 의미를 가진 것>

이것은 동사 자체에는 기본적인 의미로서 구체적인 동작이나 현상을 나타내며 사람이나 구체명사와 접속하지만, 추상명사(일부 구체명사)와 결합하면 의미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의미가 되는 동사다. 이 두 의미의 차이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 비해 복잡하고 뚜렷하며, 더욱이 한쪽은 고정적이고 관용구적으로 사용된다. 또,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주체와 객체에 오는 공통의 명사가 안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같은 명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파생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기로 한다.

(예8) 才知が ひらめく ↔ 才知を ひらめかす

顔が 曇る ↔ 顔を 曇らす

気分が 晴れる ↔ 気分を 晴らす

(예9) 命令が 下る ↔ 命令を 下す

損害が とどまる ↔ 損害を とどめる

3) 早津恵美子は 이것을 <統語的な対応>관계라고 부르고 있다.

- |                             |                 |
|-----------------------------|-----------------|
| 話題が のぼる ↔ 話題に のぼせる          |                 |
| (예10) 胤 (たね) が やどる ↔ 胤を やどす | 氣が もめる ↔ 氣を もむ  |
| 責任が 負える ↔ 責任を 負う            |                 |
| (예11) 調子が 狂う ↔ 調子を 狂わす      | 写真が 写る ↔ 写真を 写す |
| (예12) 枝が まじわる ↔ 枝を まじえる     | 役が かわる ↔ 役を かえる |

용례(8)의 동사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를 나타내는 자동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측면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면 생리·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바뀐다. 용례(9)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추상명사와 결합시키면 의미의 뉘앙스가 달라지며, 용례(10)은 그 의미가 고정적인 관용구적인 결합이 되어 기본적인 의미와는 크게 바뀐다.

한편, 용례(11),(12)는 기본적인 의미가 각각 <마음의 움직임이 보통사람과 다르게 되다(자)> <사물의 뒤편에 있는 물건이 훤히 보인다(자)> <속에 같이 넣다. 섞다(타)> <뭔가를 얻은 대신에 다른 것을 주다(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생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파생적인 것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자타동사의 어휘적인 유사성이 높고, 구조적으로도 주체와 객체에 같은 명사가 사용됨으로서 가역성이 성립된다. 따라서 이것도 전형적인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 <양쪽 의미를 다 가진 것>

이것은 동사본래의 기본적인 의미와 거기에서 발달한 파생적인 의미 양쪽에 공통의 단어가 주체 객체에 위치하는 경우다. 이들의 특징은 기본적인 의미의 경우, 명사는 거의 구체명사로 동사와 결합하여 물리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지만, 파생적인 의미로 바뀌면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사회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이다.

- |                             |                     |
|-----------------------------|---------------------|
| (예13) 箱が つぶれる ↔ 箱を つぶす      | 聲が つぶれる ↔ 聲を つぶす    |
| (예14) 明りが 漏れる ↔ 明りを 漏らす     | 秘密が 漏れる ↔ 秘密を 漏らす   |
| (예15) 스카트가ひろがる ↔ 스카트를ひろげる   | 事業が 広がる ↔ 事業を 広げる   |
| (예16) 紐が 解ける ↔ 紐を 解く        | 誤解が 解ける ↔ 誤解を 解く    |
| (예17) 花が 散る ↔ 花を 散らす        | 氣が 散る ↔ 氣を 散らす      |
| (예18) 石膏が 固まる ↔ 石膏を 固める     | 基礎が 固まる ↔ 基礎を 固める   |
| (예19) 커버가  かぶさる ↔ 커버를  かぶせる | 罪가  かぶさる ↔ 罪를  かぶせる |

## 2 전형적인 대립이 없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 즉, 주체와 객체에 오는 명사가 동일하고 의미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것과 달리 동사의 어미변화라고 하는 형태상의 대립은 있지만 주체와 객체의 위치에 오는 명사가 동일하지 않고 의미의 유사성이 낮은 동사들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의미의 대립을 갖고 있던 동사들이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쪽이 현저하게 변하여 새로운 의미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어서 생긴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들 동사를 주체와 객체에 사용되는 명사의 종류 및 관계, 명사와 동사의 결합 방법에 따라 (1)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2) <주체와 주체의 부분인 것> (3) <타동사가 관용적인 것> 등 3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 (1)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 |                                |                   |
|--------------------------------|-------------------|
| (예20) 光が ほのめく ↔ 感情を ほのめかす      | 煙が くゆる ↔ 葉巻を くゆらす |
| (예21) メーターの針が 振れる ↔ 首を 振る      | 問題が わかる ↔ 遺産を わける |
| (예22) 少女が 音楽家に こ가れる ↔ パンを こ가す  | 人が てれる ↔ 顔を てらす   |
| (예23) 水が 軒を 伝う ↔ 振動を 伝える       | 各々方 抜かるな ↔ 力を 抜く  |
| (예24) 人が 教育に たずさわる ↔ 本を たずさえる  | 肌が しわむ ↔ 眉を しわめる  |
| (예25) 電車が 込む ↔ 真心を 込める         | 日が 照る ↔ 顔を てらす    |
| (예26) 富士山は 二つの県に 跨っている ↔ 川を 跨ぐ |                   |

이들 동사는 형태적인 대립뿐이고 어휘적인 유사성은 없으며, 비슷한 것들도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처럼 확실한 대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에 위치하는 명사의 관계는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이거나 그 반대이기도 하며, 같은 명사라도 종류가 다른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こ가れる」 「てれる」 「ぬかる」 「たずさわる」 와 같이 주체에 사람이 오는 동사는 타동사의 객체에 구체명사가 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2) <주체와 주체의 부분인 것>

- |                          |                    |
|--------------------------|--------------------|
| (예27) 人が あおむく ↔ 顔を あおむける | 人は あおのく ↔ 顔を あおのける |
| (예28) 人が 屈む ↔ 腰を 屈める     | 人が かがむ ↔ 腰を かがめる   |
| (예29) 人は 伏せる ↔ 顔を 伏す     | 人が 背く ↔ 目を 背ける     |

(예30) 人が うつむく ↔ 顔を うつむける

이 경우는 주체가 모두 사람이며 객체는 사람의 부분, 즉, 얼굴이나 허리, 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자동사의 의미 속에 몸 전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그 동작을 받는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타동사는 이동 동작의 방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객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동사는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타동사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부분(측면)이 오는 것이다. 또, 이 자타의 대립은 어미변화가 모두 <u-eru>형으로 끝날 정도로 어휘적인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형적인 대립관계로 분류해도 괜찮지만 주체와 객체에 오는 명사가 다르므로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룹이라고 생각된다.

(3) <타동사가 관용적인 것>

- |                      |                  |
|----------------------|------------------|
| (예31) あまる— 旅費が あまる   | あます— あます所 たった10円 |
| (예32) 飽きる— ごちそうに あきる | 飽かす— 金に あかして     |
| (예33) うごめく— 虫が うごめく  | うごめかす— 鼻を うごめかす  |
| (예34) きたる— 台風が きたる   | きたす— 破局を きたす     |
| (예35) 足る— 賞するに 足る    | 足す— 用を 足す        |
| (예36) 濁る— 空気が 濁る     | 濁す— 言葉を 濁す       |

이들은 의미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타동사의 용도가 관용적이거나 혹은 객체에 오는 명사가 몇 개 밖에 없는 특정한 것이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자동사의 어미가 「る」로 끝나는데 비해서 타동사의 어미는 「す」가 되어 있다.

이 「す」라는 조동사는 「用を足す」「用が足る」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사역의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휘적으로도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せる」「させる」가 발달하여 이들 오래된 용법은 쓰이지 않게 됨으로서 형태가 고정되어 결국은 자동사와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예외적인 특수한 동사들이다.

- |                       |                 |
|-----------------------|-----------------|
| (예37) 夜が 明ける ↔ 夜を 明かす | 日が 暮れる ↔ 日を 暮らす |
| 人が 化ける ↔ 人と 化かす       |                 |

이들은 주체와 객체에 오는 명사는 같으나 의미적인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가역성원리에 적용하면 성립되지 않으며, 모두 <e-ru>↔<as-u>형의 동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형태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립이 있는 것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립이 없는 중간적인 성격의 동사라고 하겠으며 여기서는 이들을 특수한 것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 Ⅲ 언어론의 관점에서 본 유대타동사의 의미 분류 및 분포 상황

여기서는 타동사를 중심으로 오쿠다야스오(奥田靖雄)의 『連語論』(1983)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자동사가 어느 그룹에 많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해 보기로 한다.<sup>4)</sup>

우선, 오쿠다는 「を格」 명사와 동사와의 결합을 크게 <1>대상적인 결합(対象的なむすびつき) <2>상황적인 결합(状況的なむすびつき)로 나누고, <1>을 다시 세분화하여 (1)<대상에의 동작·작용(対象へのはたらきかけ)>을 나타내는 언어<sup>5)</sup> (2)<대상의 소유, 주고받기, 사고팔기(対象への所有、やりもらい、うりかい)>를 나타내는 언어 (3)<대상에의 심리적인 관계(対象への心理的なかわり)>를 나타내는 언어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3개를 다시 하위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타동사는 (1)그룹에서 많이 보이며, 그중에서도 하위그룹인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언어에 특히 많은 것 같다. 이것은 같은 하위그룹인 <사람에 대한 동작·작용>이나 <사건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언어보다도 「を格」 명사에 구체명사가 오고 동사 자체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타동성이 강한 작용동사가 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4) 원래 언어론은 몇 개의 카테고리(범주)를 분류하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を」 격 명사와 동사와의 결합과 이들과 접속하는 제2대상어, 즉 「に」 격, 「へ」 격, 혹은 「から」 격등의 명사와의 결합에 의한 것이지만, 본고는 들어가기에서 언급한대로 사전의 용례를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완성된 어구도 짧고, 제2대상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동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주로 해당 동사의 사전상의 기본적인 의미를 기초로 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의미란 대부분의 경우 어구설명의 ①의 의미와 일치한다.

5) 「働かせる」란 일반적으로 자타동사에 관계없이 동사가 대상을 취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행위를 한다(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働かせる」에도 여러 단계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 1 <대상에의 동작·작용> 을 나타내는 연어

(1)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과 자동사와의 관계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연어에서는 「を格」명사가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고, 타동사의 구체적인 동작이 그 사물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皿を割る」예를 들어 설명하면, 「割る」라는 동작은 사람의 대상에 대한 동작으로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한다고 하는 동작이 「皿」에 가해져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타동사는 그 대상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대상물의 경우, 변화하도록 동작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한 상태가 존재하며 그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자동사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대응이란 것은 의미적으로는 「する」상태에서 「なる」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연어는 수식명사와 피 수식동사(타동사)의 결합은 단순하면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과정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자타의 대응을 가지는 동사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그룹의 6개의 하위그룹에는 전혀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은 이들 타동사에 자동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する」상태에서 「なる」상태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그룹의 타동사에 왜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대응이 있는 타동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대상변화(もようがえ)

대상변화 동사는 유대타동사가 많지만, あやつる、いためる、(豆を)煎る、彩る、刻む、削る、縫う、(餡を)こす、縛る、絞る、耕す、畳む、束ねる、はしよる、(琴を)弾く、ひねる、(たばこを)ふかす、伏せる、ほじくる、干す、磨く、結ぶ、結う、揺さぶる、揺する 등은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법서에도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고 해도 島田昌彦(1979)『国語における自動詞と他動詞』에6), “他に働きかけることを本質とするゆえにの他に対する働きを自己の方向に向けるときは受身として表現されなければ、使用不可能になるからであろう。” 정도의 설명밖에 없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6) 島田昌彦, 『国語における自動詞と他動詞』, 明治書院, 1979, 24쪽

## (a) 「ふせる」 「ふかす」

「ふせる」란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주된 의미가 <발견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다> 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자동사 「ふす」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람 관련 동사로 주체와 객체에는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오랜 세월 속에 「ふせる」동사는 사람이외의 사물에도 사용되게 되었지만, 「ふす」는 여전히 사람에게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겨서 결국 「ふせる」는 사물에 대한 자동사가 결여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sup>7)</sup> 「ふかす」도 마찬가지로 연기(煙)라고 하는 명사에 대해서는 「ふく」라는 자동사가 있어서 자타의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ふかす」는 <けむり>에서 <たばこ>로 바뀌고, 「ふく」는 바람에만 사용되게끔 되었다고 생각된다.

## (b) 「あやつる」 「ゆさぶる」 「ゆする」 「ひく」의 경우

- 操る(あやつる) - 「人形をあやつる」의 경우, 인형을 움직이도록 하지만 그것을 움직인 결과는 남지 않는다.
- 揺する、揺さぶる - 「木を揺する、揺さぶる」는 사람이 나무를 움직여도 그 흔적은 남지 않는다
- 弾く - 「琴を弾く」는 연주한 뒤의 동작 결과는 역시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이들 동사에 대응하는 자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만, 객체에 이와 같은 특정한 단어가 왔을 경우에만 이 설명이 가능하다.

## (c) 「削る」 「いためる」

이들 동사에는 개념적으로 「けずれる」 「いたまる」라는 동사가 대응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로서의 의식이 거의 없다. 이 밖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양쪽으로 사용되는 동사로서 「結ぶ」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관계가 있는 타동사란 어휘적인 면에서 (a) ~ (c)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② 부착 (とりつけ)

부착동사는 대상변화 동사처럼 설명이 간단하지 않으며, 왜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열거만 하기로 한다.

7) 『広辞苑』新村出編 第7刷 岩波書店 1982 참조

あてがう, 浴びせる, 浴びる, おぶう, かかげる, 飾る, 担ぐ, かぶせる, くべる, 組む, 着せる, しょう, 据える, そそぐ, つぐ, 繫ぐ, 吊す, 塗る, 貼る, (畑に種を) 撒く, (系卷に系を) 巻く, (着物を) 着る, まとう, (靴を) はく, まぶす, よそう

단, 이 중에서 「はく」 「着る」 「まとう」 는 객체에 작용을 하여 동작을 일으킴과 동시에 주체의 상태변화까지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재귀동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동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くむ」 「おく」 「ふくむ」 는 자타동사 양쪽으로 사용되는 양용동사다.

### ③ 제거 (とりはずし)

이 동사 그룹에는 수적으로는 기본 동사보다 복합 동사가 더 많지만, 들어가기에서 언급했듯이 복합동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つむ」 「はらう」 「除く」 「かる」 「むしる」 에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휘적인 면보다 어미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타동사 중에서 자동사와 대응관계를 갖는 단어의 어미는 「～える」 「く」 「す」 「～あす」 이지만, 위의 동사 중 「つむ」 는 「む」, 「はらう」 는 「う」 로 끝나기 때문에 대립하는 자동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く(ぐ)」 로 끝나는 타동사도 자동사의 형태가 「～える」 로 끝나야 하지만 「のぞく」 의 자동사는 「のぞける」 가 되어 가능동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립하는 자동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나머지 두 동사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 ④ 이동 (うつしかえ)

이동 동사는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 대응하는 자동사가 있다. 그 중에서 자동사가 없는 동사는 「投げる」 「運ぶ」 「放(ほう)る」 인데, 「運ぶ」 는 본래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사용되는 양용동사이며, 「投げる」 는 대응하는 자동사가 안 보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ほうりなげる」 에 대한 「ほうりながる」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8) 「ながる」 라고 하는 자동사의 존재도 생각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다.

「放る」 는 의미적으로 「投げる」 와 같지만 「はぶる」 가 변화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전에는 대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⑤ 접촉 (ふれあい)

접촉 동사에는 유대타동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 그룹의 특징인 「を格」 명사로 나타내지는 사물에의 동작·작용이 아무런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고

8) 주로 栃木県에서 사용되는 栃木方言으로 <放置してある状態をあらわす>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단순한 접촉 또는 파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물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의 극히 일부밖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태뿐만 아니고 그 결과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동사에 대응하는 자동사가 존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그룹 동사 중 「こする」에 대응하는 「こすれる」, 「さす」에 대응하는 「ささる」은 자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ささる」란 동사의 의미는 뽕족한 물건의 끝이 뭔가의 표면을 뚫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こすれる」는 사물과 접촉하여 원형이 손상된다고 하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⑥ 결과적 결합 (結果的なむすびつき)

여기에 속하는 동사는 「を格」명사로 나타내지는 사물은 물리적인 작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동사 속에는 이미 자동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별도의 자동사는 있을 수 없지만, <お湯を 沸かす—お湯が 沸<>와 같이 명사에 먹을 것(뜨거운 물, 밥, 생선 등)이 오는 경우나, 자연발생적인 현상, 예를 들면 <子を 生む—子が 生まれる>의 경우는 자동사가 특별히 존재한다.

#### (2) <사람에 대한 동작·작용>과 자동사와의 관계

<사람에 대한 동작·작용>은 「を格」명사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보다도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더욱이, 동사가 타동=사역성의 형태나 자동사의 사역형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자동사의 사역형이란 것은 타동사로서의 취급여부가 아직도 논쟁중이고 사전 속에서도 「せる」 「させる」가 붙은 동사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奥田(1983)의 『連語論』에는<sup>9)</sup>

實際、人にたいするはたらきかけをあらわす連語は、大部分が自動詞とついでになっている。他動詞、自動詞の使役のかたちによってつくられている。その自動詞は、もちろん、人間の状態変化をしめ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が、かざられ動詞の、こうした形態論的なつくりが語彙的な意味の性格を形式に表現しているといえる。

라 적혀있으며 그 주장대로 대응하는 자동사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9) 言語学研究会, 『日本語文法·連語論 (資料編)』, むぎ書房, 1983, p. 45.



고, 소유적 결합은 대상물의 변화가 아닌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유 관계 언어의 구성요소는 수식명사에 구체명사나, 사고팔기,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는 추상명사, 돈에 관한 명사가 사용되고, 동사에는 소유동사가 온다. 또, 제 2의 명사로는 상대방=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나 소유물의 소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물에의 동작·작용> 나타내는 언어와는 동사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소유적 결합> 중에도 <대상에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언어에서 언급한 대립이 있는 동사 「集める、渡す、あげる、下ろす、さげる、だす」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奥田의 설명처럼 그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휘적인 의미의 변질=추상화가 발생하여 <소유적 결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한 유대타동사의 의미 분야를 생각함에 있어서 의미제약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단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ためる」、「も으ける」、「もどす」、「返す」동사는 기본적 의미에 소유적 결합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 명사는 돈에 관한 것이므로 역시 <대상에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그룹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소유적 결합>은 기본적인 의미로서의 자타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심리적 결합>과 자동사와의 관계

이 그룹 동사는 심리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を格」명사는 그 대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을 향한 물리적인 동작·작용에 따른 대상변화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자타의 대립관계를 가지는 동사 페어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여기에 소속된 동사는 한어동사, 복합동사가 많으며 다소의 작용동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관용적인 결합에 사용되거나, 이미 기본적인 의미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의 타동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 IV 양용동사의 의미와 용법

양용동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ひらく」「吹く」「わすれる」처럼 같은 형태로 자동사나 타동사 양쪽의 용법으로 모두 사용되는 동사(자타동형)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에는 2종류가 있으며 사전의 설명법도 다르다.

다음은 『新明解国語辞典』(1985)의 설명이다.

《설명법 1》

(예41) ふるまう ① (自五) 人の前で、ある動作をする。「わかままに一」 ② (他五) 来客に対して、酒、食事を出して、もてなす。

《설명법 2》

(예42) こころざす (自他五) 積極的に何かしようという気持を持ち、その実現に努力する。「学問に一。」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용례(41)은 자타동형이라고 해도, 그것은 형태상의 문제이며 그 동사가 가지는 자동사적인 의미와 타동사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용례(42)는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양쪽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동사를 어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자타동사의 대응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佐久間(1966)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10)</sup>

同じ一つの単語で自動詞にも他動詞にもなるようなものは、文語にはいくつか見出されて、自他の問題の際に、よく引きあいに出されます。口語にも

(他動) 笛を吹く。火を吹く(火吹き竹で)。

(自動) 風が吹く

のような例があります。しかしその意味のちがうところを見れば、同一の単語ではなくて、むしろ別の語と認めるのが適当でしょう。口語には、こんな類のものはあってもごく少ないので、問題にするほどではありません。

분명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단어는 아니라는 것은 사전의 설명법의 차이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있어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본고에서 사용한 용례는 81개로 동사의 전체로 보면 극히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도 좋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佐久間は 자타동사를 어법의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 존재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동사 중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대립하는 자타동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동사를 어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결합하는 명사의 종류나 동사의 종

10) 佐久間鼎,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恒星社厚生閣, 1966, p41.

류에 따라 자타 관계를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설명법 1》

### 1-1 <결합하는 명사가 같은 것>

(예43) 実が 結ぶ ↔ 実を 結ぶ

(예44) 店が しまう ↔ 店を しまう

(예45) 根が はる ↔ 根を はる

(예46) 糸が たれる ↔ 糸を たれる

(예47) ハンドバックが ひらく ↔ ハンドバックを ひらく

事が 運ぶ ↔ 事を 運ぶ

水が (海に) 注ぐ ↔ 水を 注ぐ

人数が 増す ↔ 人数を 増す

手が ふれる ↔ 手を ふれる

위의 예는 한 단어 속에 자동성-타동성이 내재되어 명사가 주체의 위치에 오는지 객체에 오는 지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해석되는 동사이다.

양용 동사라고 하면 대부분 이러한 대립(대응)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예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동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의 단어에 자동사로써의 의미와 타동사로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동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을 특수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도, 자동사타동사는 같은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례(43),(44)는 타동사가 중심이며 자동사로써의 의미용법은 이것 한 종류밖에 없으며, 용례(45)~(47)은 그 반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용동사라고 해도 본래는 어느 한쪽의 용법이 주된 것이 많은 것 같으므로 타동사적인 용법이 중심이 되는 것은 타동사, 또, 자동사적인 용법이 중심이 되는 것은 자동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자타동형 동사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주체의 위치에 어떤 종류의 명사가 오면 자동사로 취급되는지, 타동사의 객체에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오면 되는지, 또한 이러한 동사의 의미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등을 들 수 있지만 너무 일관성이 없고 공통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반대의 방법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이 반대 방법이란, 타동사의 의미가 중심인 것은 자동사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지, 또 자동사가 중심인 것은 역시 타동사의 의미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다음은 이 방법에 따른 것이다.

### 1-2 <결합하는 명사가 다른 것>

여기에 예로 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의미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는 관

계로 결합하는 명사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용법이 주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미 다른 한쪽의 의미는 거의 사라져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양용동사의 어휘적인 한 특성이라 생각하여, (1) 타동사의 의미가 주된 것 (2) 자동사의 의미가 주된 것 (3) 양쪽 정도가 같은 것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1) 타동사의 의미가 주된 것

양용동사 중 타동사의 의미가 주된 동사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들은 자동사의 의미가 특수하게 바뀌어 문어문에 사용되거나, 관용적인 결합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동사의 의미가 주된 용법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동사의 어휘적인 측면에서, ① <문어문에 사용되는 것> ② <속어적으로 사용되는 것> ③ <용례가 없는 것> ④ <기타> 등 4가지로 하위분류하기로 한다.

① <문어문에 사용되는 것>

- |                 |               |
|-----------------|---------------|
| (예48) うつ— 脈うつ   | かえず— 寄せてはかえず波 |
| (예49) おう— 名に負う  | よせる— 寄せてはかえず波 |
| (예50) つむ— 降りつむ雪 | しく— 降りしく雪     |

이들은 타동사로써 사용되는 경우, 객체에 오는 명사에 따라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자동사로써는 문어문 등에 사용되는 오래된 용례들뿐이다. 더욱이 용례(50)은 자동사적인 의미가 소멸되어 접미어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② <속어적으로 사용되는 것>

- |                                     |                 |
|-------------------------------------|-----------------|
| (예51) うける— 大衆にうける                   | おえる— 宿題がおえる     |
| (예52) あげる— 胸があげそうだ                  | かぶる— 乾板・フィルムが曇る |
| (예53) ながす— 芸人・あんま・タクシーが客を求めて移動する    | せめぐ— 兄弟牆にせめぐ    |
| (예54) おく— 露・霜などがおりて、その場所にあることが認められる |                 |

이들 동사는 결합하는 명사가 극히 제한적이라 특수한 용법인 관용구적 결합, 또는 속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③ <용례가 없는 것>

- |                  |                           |
|------------------|---------------------------|
| (예55) かむ— かみあう   | たもつ— ある状態が変わらずに、長く続く      |
| (예56) ぬたくる— のたくる | もよおす— 何かの状態になろうとするきざしが見える |

위의 예는 자동사의 의미는 규정되어 있지만, 자동사로서의 용례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④ <기타>

(예57) あおる— 戸が あおっている

ふさぐ— 気が ふさぐ

(예58) つめる— 人が 隣室に 詰める

ひかえる— 人が 隣室に 控える

(예59) のぞく— 白髪頭が 覗いている

위의 예는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용법에 차이가 있다. 타동사적 용법으로는 주체인 사람이 객체인 구체적인 사물에 물리적인 동작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자동사적 용법은 자연 혹은 우발적인 현상, 혹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자동사적 용법은 사용수가 적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양용동사는 자동사의 의미가 타동사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적고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동사의 의미용법이 중심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자동사의 의미가 주된 것

다음은 반대로 자동사의 의미가 주된 것들로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유사성은 없지만 한쪽의 의미용법이 고정화, 특수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경우는 타동사의 어미적인 측면에서 ① <관용구적인 것> ② <한정적인 것> ③ <속어적인 것>으로 하위분류하기로 한다.

① <관용구적인 것>

(예60)はずむ— チップを 弾む

きく— 口を 利く

(예61)せまる— 辞職を 迫る

はたらく— 強盜を 働く

(예62)まける— 百円の品を 負ける

이들은 일반적으로 타동사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자동사의 의미용법과 비교해보면 객체에 오는 명사가 대부분 제한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 용법에는 관용구적인 것도 있으며, 종합하면 인간의 특별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한정적인 것>

(예63) つむ— 相手の王將を逃げられなくて、次の一手で取れるようにする。



이들 동사는 자동사적으로 사용되면 사람이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주체에는 사람이 오는 것이 절대적이며 기분 등 내적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타동사로써 사용되는 때에는 객체의 위치에 구체적인 사물이 오기 때문에 주체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전혀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기만 할 뿐이다. 단, 「笑う」는 이 동사본래의 기능으로써 생리=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감정이 포함된다.

- ②(예74) ふく— 風が ふく ↔ 笛を 吹く  
 (예75) さす— 西日が 差す ↔ かんざしを 差す  
 (예76) むす— 陽氣が むす ↔ ごはんを 蒸す  
 (예77) あける— 夜が 明ける ↔ 戸を 明ける  
 (예78) つもる— 雪が 積る ↔ 人の心を 積る

자동사로써 사용되는 때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동사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주체에는 자연관련 현상명사가 온다. 그러나 타동사로써 사용되는 때에는 객체의 위치에 구체명사가 와서 관용구적인 결합도 있지만 인간의 동작을 나타내게 된다.

- ③(예79) おごる — 奢った 暮らし ↔ うなぎを 奢る もつ— 座が 持つ ↔ 家を持つ  
 (예80) しぶる— 売れ行きが 渋る ↔ 返事を 渋る ひく— 客足が 引く ↔ 綱을 引く  
 (예81) のす— 勢力が 第一位に 伸す ↔ ハンカチ를 伸す  
 (예82) つのる— 傾向が つのる ↔ 人を つのる  
 (예83) ぬく— 中国經濟가 他國을 抜く<sup>11)</sup> ↔ しみを 抜く

이들은 이렇다 할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자동사의 주체에 오는 명사가 사회현상과 연관이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반면, 타동사로써는 역시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2 《설명법 2》

다음 예는 자타의 의미가 앞의 것과 같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에 자동성 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차이가 없는 동사이다. 그러나 이들 동사도 사용법에 따라서 자동사가 주된 것, 타동사가 주된 것, 양쪽 정도가

11) 이 「を抜く」은 장소를 나타내는 「を抜く」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 등과 같이 차이가 보이며 각각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용법의 차이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1) <타동사의 용법이 주된 것>

- |                     |             |
|---------------------|-------------|
| (예84) おこたる— 義務を怠る   | ころざす— 学問を志す |
| (예85) たのしむ— ピアノを楽しむ | はせる— 思いを馳せる |
| (예86) わすれる— 恩を忘れる   |             |

얼핏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인간 행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며 자동사로서 사용되는 때는 두 단어로 문장이 완결되지만, 타동사로서 사용되는 때는 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내용을 필요로 하며, 그 내용은 주로 추상명사가 많고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2) <자동사의 용법이 주된 것>

- |                 |          |             |
|-----------------|----------|-------------|
| (예87) こむ— 電車が込む | ふく— 火が噴く | なまる— 言葉がなまる |
|-----------------|----------|-------------|

이들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의도적으로 행한 결과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결합하는 명사는 인간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도 오기 때문에 (용례(87)은 「手が込む」 「血が噴く」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반드시 특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양쪽 정도가 같은 것>

- |                          |            |
|--------------------------|------------|
| (예88) あやまる— 進路が あやまっている  | 道を あやまる    |
| (예89) かずける— 病気を 被けて 休む   | 罪を 人に 被ける  |
| (예90) かまう— どうぞ 構わないで下さい  | なりふりを 構わない |
| (예91) ともなう— 収入に 伴わない 生活  | 犬を 伴う      |
| (예92) やすむ— 二日続いて 休む      | 学校を 休む     |
| (예93) はばかる— だれに 憚ることも 無い | 他言を 憚る     |

이들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도 같은 정도로 사용되는 동사

로 그것은 다음 용례를 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          |
|---------------------|----------|
| (예94) はらむ— 子供が 孕む   | 子供を 孕む   |
| (예95) はだける— 胸が はだける | 胸を はだける  |
| (예96) 人選が あやまる      | 人選を あやまる |
| (예97) 危険が ともなう      | 危険を ともなう |

이들은 자타 동형에 결합하는 명사가 같은 것과 많이 비슷하지만, 설명법의 차이와 하나의 단어가 자동사 타동사로써 같은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3)중에는 예를 들면, 「かずける」「かまう」「はばかり」와 같이 타동사로써 사용되는 때에는 (1)의 것보다도 제한을 받아 관용적인 결합을 만드는 것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동사는 결합하는 명사에 특별한 특징은 없고, 사용법의 차이에 따라 어느 쪽에도 사용되는 동사이다.

## V 마무리

이상, 오키다 야스오의 連語論에 근거하여 유대타동사가 어느 그룹에 많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1>대상적인 결합 중에서 (1)<대상에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연어그룹에서 많이 보이며, 그중에서도 하위그룹인 <사물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연어에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같은 하위그룹인 <사람에 대한 동작·작용>이나 <사건에 대한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연어보다도 「を格」 명사에 구체명사가 오고 동사 자체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타동성이 강한 동사가 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들 동사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1) 대상변화, 부착, 제거, 이동, 결과적 결합의 범주에 속하는 것
- 2) 대상의 변화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3) 대상물이 동작·작용을 받아서 변화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12) 早津恵美子は「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1989)」에서 대응하는 자동사가 있는 것에는「働きかけの結果の状態に注目する動詞」가 많고, 대응하는 자동사가 없는 것에는「働きかけの過程の状態に注目する動詞」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 4) 자타의 대응이 1대 1인 것
- 5) 어휘적으로 자동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
- 6) 자타동사가 같은 형태(자타 동형)이 아닌 것
- 7) 어미변화가 원칙적으로 「る」「す」「～える」「～あす」로 끝나는 것

한편, 자타 동형의 양용동사는 실제 사용상 자-타동사 중 어느 한쪽의 용법이 주된 것이 많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타동사의 의미가 중심인 것은 자동사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지, 또 자동사가 중심인 것은 역시 타동사의 의미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지, 자-타동사의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이들 그룹에는 「いう」「する」 등과 같은 동사도 있지만 용도범위가 너무 넓은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생략하였다.

## 【参考文献】

岩波書店(1982) 『広辞苑』 新村出編 第7刷.  
 岩淵悦太郎 関根俊雄 山崎久之共著(1970) 『新版口語の文法』, 秀英出版.  
 奥田靖雄(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むぎ書房.  
 言語学研究会(1983) 『日本語文法・連語論 (資料編)』, むぎ書房.  
 佐久間鼎(1966)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恒星社厚生閣.  
 三省堂(1989) 『新明解国語辞典』 第4版.  
 島田昌彦(1979) 『国語における自動詞と他動詞』, 明治書院.  
 須賀一好(1986) 「動詞の形態論 自動詞・他動詞」 『国文学解釈と鑑賞』, 51-1, 至文堂.  
 日本語研究資料集(1995) 『動詞の自他』, (編者) 須賀一好・早津恵美子, ひつじ書房.  
 早津恵美子(1989a) 「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一意味的な特徴を中心に」  
     『言語研究』 95, 言語学会.  
 早津恵美子(1989b) 「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意味上の分布」, 『計量国語学』  
     16-8, 計量国語学会.

## 要 旨

現代の国語辞典の動詞の語句の説明の上には必ず自他の区別が明記され、その下に活用の種類が書かれているが、この自他の分類は絶対的なものではなく、辞書によっては所々くい違いが見られる。自動詞と他動詞の関係は両者が対立するもの(有対他動詞)、対立する他動詞がなく自動詞だけのもの、その逆のもの、自動詞と他動詞に共用される自他同形(兩用動詞)という4つの場合が考えられるが、本稿では有対他動詞とその一種であるとされる兩用動詞について、その意味と用法及び分布状況に焦点を合わせて分析を行った。

まず、第2章の有対他動詞の意味と用法関係については、従来の主体と客体の関係性を考慮に入れて、この二つが同じ名詞の場合を「典型的な対立のあるもの」、違う場合を「典型的な対立のないもの」と分類し、さらに前者は(a)基本的な意味のもの(b)派生的な意味のもの(c)両方の意味を備えたものに下位分類して分析を行った。一方、後者はさらに(a)性質の違うもの(b)主体と主体の部分のもの(c)慣用的なものに下位分類して分析を行った。

第3章では有対他動詞を中心に奥田靖雄の『連語論』に基づき、対応する自動詞がどのグループに多く存在し、その原因は何であるかを分析した。その結果、自他のペアのある動詞は、(1)〈対象への働きかけをあらわす連語〉、その中でも下位グループの〈物に対する働きかけをあらわす連語〉に特に多く、それはこのグループの意味的な特性の上から当然の結果であろう。

第4章では、自動詞と他動詞に共用される、兩用動詞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調べてみた。これらには実際使用上2種類があり、よって方法論的に二つの説明の仕方、つまり、自他動詞と結合する名詞が同じであるかによる〈説明の仕方1〉と、実際にどちらの用法が主なものなのかによる〈説明の仕方2〉の分けて分析を行った。

キーワード：可逆性，有対他動詞，兩用動詞，連語論，結び付き，自-他の関係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